광주, 탄소중립포인트 참여율 전국서 가장 높아

에너지·자동차·녹색생활실천 부문 참여율 58.28%…전남 전국 6번째

광주의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참여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시는 올해도 16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탄소중립 시민 참여 사업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율은 58.2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광주에 이어 제주(35.61%), 전북(23.09%), 경남(17.56%) 순이며 전남(15.67%)은 대전(15.88%)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높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광주시가 2008년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해 현재까지 지속해 오고있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가 2009년 광주시 운영 탄소포인트제를 전국단위 사업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는 크게 에너지 분야, 자동차 분야, 녹색생활실천 부문으로 나뉜다.

에너지 분야 대상으로는 개인(단독·공동주택 거주자), 상업(사업자, 학교, 아파트 단지)으로 분류돼 에너지 감축 실천여부를 확인한다.

최근 2년 평균사용량 대비 전기·가스·수도 등을 5% 이상 절감한 개인에게는 연 최대 10만원을, 상업에게는 연 최대 40만원을 그린카드포인트 또는 현금으로 지급(연 2회)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자치구별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현황을 보면 북구에서 11만 9646가구가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동참하며 가장 많은 수가 참여했다.

광산구가 8만 5863가구, 서구가 7만 6872가구, 남구가 5만 7731가구, 동구가 3만 236가구 순으로 집계됐다.

참여율로 보면 5개 자치구 중 남구가 60.50%로 가장 높았고 북구(59.04%), 서구(57.92%), 동구(54.62%), 광산구(49.94%) 순이었다.

올해도 광주시는 16억 1700만원(국비 7억 7900만원, 시비 8억 3800만원)을 들여 탄소중립포인트제를 운영한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비상업용 승용·승합차량과 휘발유·경유·LPG차량에 한해 주행거리 1000㎞ 미만 2만원, 4000㎞이상 10만원을 1년에 12월 한 차례 현금으로 지급한다. 친환경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가 직접 추진하는 녹색생활실천분야에서는 전자영수증 발급, 다회용컵·다회용기 등을 이용한 개인에게 최대 7만원의 그린카드포인트나 현금을 지급한다.

개인·상업 대상자는 탄소중립포인트제 홈페이지 가입 또는 자치구에서 접수한 뒤 사용량을 검증받는 방식으로 포인트를 산정받는다. 자동차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또는 자치구 접수를 한 뒤 자동차 계기판 사진을 매년 초에 제출하고 10월 말께 자동차 계기판 사진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광주시는 전년도 11월부터 당해 10월까지 탄소중립실천 목표 달성률, 개인정보 현행화, 우수아파트 신청 달성률, 온실가스 감축량, 홍보실적 등을 토대로 자치구 평가를 진행한다. 우수 자치구에는 포상금과 사업비를 차등 교부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동구는 '녹색도시'

녹지 한평 늘리기 등 녹화사업 추진

광주시 동구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도심녹지 확충에 나선다.

25일 동구에 따르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흡수,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해 올해 3억 8000만원을 투입해 녹지 한 평 늘리기, 자녀 안심 그린 숲 조성,도심 속 바람길 숲 조성 등 다양한 도심 녹화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 녹화 사업은 일상 속 우리 주변에 방치된 공간에 특색있는 조경을 연출해 주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동산초등학교와 광주지방법원 사이의 어린이보호구역에 '자녀 안심 그린 숲 조성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학생들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유도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해 미세먼지와 폭염에 취약한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과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는 것이 동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계림동 대인교차로에서 계림문화공원 방향으로 '바림길 숲(연결 숲)'을 조성해 푸른길 공원과 문화공원을 잇는 녹지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도심 속 생활권 주변에 녹지공간을 늘려 동구민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고 생활 속에서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 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북구, 그린도시 청사진 '탄소중립 비전' 선포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시행

광주시 북구가 그린도시 청사진을 담은 '탄소중립 비전'을 선포했다.

25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1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 용봉홀에서 광주시 북구 '탄소중립 비전 선포식'이 열렸다. 〈사진〉

이번 선포식은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북구의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인 북구청장, 지역의원, 환경단체, 주민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북구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지구 지키기 서약식을 진행하고 비전을 선포했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흡수량은 늘려 실질적인 탄소 배출량이 '0'인 상태를 뜻하는 말로 급변하는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북구는 정부보다 5년 이른 2045년에 탄소중립 도시로 거듭나고자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행복한 그린도시 광주 북구'라는 비전하에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비전 선포식에서 발표될 1차 북구 탄소중립 녹생성장 기본계획은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2034년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북구가 추진할 중·장기 전략이다.

에너지 전환,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산업, 흡수원 등 7개 부문 40개의 사업이 담긴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204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6.9% 감축하고 광주 최초 국제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무등산 평두메습지 보존 및 도로개설로 끊어진 장원지맥 생태축을 연결하는 등 도시공간 내 탄소 흡수원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을 완수한다는 방침이다.

일상생활 속 탄소 배출 감소 실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마을별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달성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과제를 정립한 '마을 단위의 탄소중립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서구, 자립준비·가족돌봄청년에 '응원 장학금'

9천만원…교육·훈련·심리적 지원

광주시 서구가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청년들에게 '응원장학금'을 지원했다.

25일 서구에 따르면 '복지틈새 제로(0), 12달이 행복한 따뜻한 서구' 실현을 위한 012서구파트너스 두 번째 사업으로 지역 자립준비청년과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90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구는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응원하고, 질병 등으로 아픈 가족들을 돌보느라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가족돌봄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

고액 후원자 그룹인 서구아너스가 취업준비생 80명에게 각 50만원씩 총 4000만원의 응원금을 지원했으며, 호반장학재단이 대학생 30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

또 서구는 지난 22일 참가비 5000원을 내고 광주천 일대 5.2㎞를 걸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제4회 함께서구, 오~잇길 걷기대회'를 개최해 후원금 2000만원을 모았다. 〈사진〉

김이강 서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청년들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꿈과 힘을 키우는 일이다"며 "앞으로도 교육과 훈련, 심리적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립준비청년 커뮤니티 한울 운영자인 김남중씨는 "자립준비청년과 돌봄청년들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자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잘 정착하고 자립력을 키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는 서구민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2000만 뷰 돌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 북구, 4년 연속 선정

광주시 북구가 2025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에 4년 연속으로 선정됐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은 지역 중심의 장애인 역량 개발과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해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 계속 지원(지정 2년 이하), 특성화 지원(지정 3년 초과) 등 지정 연수에 따라 3개로 구분하여 진행됐다.

북구가 참여한 특성화 지원 분야에서는 사업 전반에 관한 평가과정을 거쳐 전국 26개 지자체가 최종 뽑혔다. 북구는 이번 공모에서 장애인 교육격차 완화와 맞춤형 교육 기회 제공을 도모하고자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장애인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주제로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사업은 공모를 통해 확보한 국비에 지방비를 더하여 총 1억 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지역의 장애인에게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콕뱅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콕!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콕!
바로 바로 확인까지 콕!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H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순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1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화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운천지점 062)371-2772~3
유덕지점 062)373-3235~6
동운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